

나주배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탄력

시, 국비 3억6000만원 들여 영농법인에 '배 꺾레 가공시설'...상품성 떨어지는 제품 가공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나주배를 부가가치가 높은 반가공 식품으로 제조하는데 탄력이 붙게 됐다.

나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2년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나주배 꺾레(puree·농축 과즙) 반가공 시설' 신축에 쓰일 국비 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먹거리 분야 국정과제이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내실화를 위한 푸드플랜 단위사업 중 하나다.

공모 선정으로 유치한 나주배 반가공 시설은 사업 용도 주체인 나주 노안면의 농식품 가공업체 '좋은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 들어선다.

규모는 연면적 825㎡에 전처리·가공·살균 기능을 갖춘 가공설비가 들어설 계획이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전남도 자체심사를 통과한 후 농식품부 현장평가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전국 28개 업체와 경합 끝에 최종 선정된 11개 업체에 포함됐다.

나주지역 업체 중에서는 지난 2019년 '가보팜스'에 이어 2번째 선정이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15년 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혼합음료와 과채주스,



나주시 노안면에 소재한 식품가공업체 '좋은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식품 가공설비. <나주시 제공>

워터젤리, 아이스 스무디 등을 생산해 왔다.

2015년에는 자체 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특허 등록 4건, 특허출원 16건, 기술이전 4건 등의 실적을 올리며 경영의 내실을 다져왔다.

지난해는 자연재해로 낙과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 나주배 1만5000여kg을 전량 구매해 농가 소득 안

정에 기여하기도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 꺾레 가공시설 확보로 푸드플랜 특화품목인 나주배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수급 조절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악취저감 미생물 무료 공급 확대

암모니아 65% 낮춰 기존 소·돼지서 모든 축종으로

담양군이 축사 악취를 줄여주는 악취저감 미생물의 공급대상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친환경미생물센터의 미생물 공급 확대와 악취 저감 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미생물의 무상공급 대상을 기존 소·돼지에서 전 축종으로 확대

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공급하는 전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의 특허군주 악취저감미생물의 희석액을 축사의 벽면과 바닥에 분무하면 축사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가스 등으로 발생한 냄새 성분을 암모니아 65%, 황

화수소 4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미생물 배양액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지역 축산 농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축종별 사용두수를 기준으로 20ℓ 씩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장흥군,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안전조끼 배부

장흥군이 가을 추수철 교통사고 취약 어르신의 교통안전사고(농기계, 이륜차, 보행용 의자차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야광안전조끼를 제작, 10개 읍면에 배부한다.

이번 안전조끼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 영농철을 맞아 심야 시간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200벌을 우선 배부된다.

안전조끼 착용으로 도로 이용 어르신의 안전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이 가능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이번 안전조끼 배부를 통해 가을 추수철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우리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장성군이 오는 20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발행 확대와 10% 할인행사 등으로 인한 부정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단속되면 지난해 7월 발효한 지역 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단속과 함께, 지역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 등 본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의료기기 제조기업 유치...70억 투자 협약

치과용 기기 제조 디엑스엠

화순군과 전남도는 지난 30일 의료기기 제조 업체인 ㈜디엑스엠(대표 정두락)과 투자 금액 70억, 고용 인원 40여 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둔 디엑스엠은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기술특허 18건 보유, 연 매출 28억 규모의 건설한 기업이다.

주력 생산제품인 의료용 믹싱팁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현재 수주 받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주문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투자유

치를 통한 지속적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디엑스엠은 오는 2022년까지 화순백산산업특구 생물의약산업단지내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경기도에 있는 본사도 화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인재의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욱더 노력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오감통 시장에 '외국인 쉼터' 개설

강진읍 오감통 시장 2층 고객 휴게실에 강진군 지역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쉼터가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강진외국인쉼터는 PC, 프린터 등을 갖춘 정보검색공간,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등을 갖춘 멀티미디어실, TV, 안마의자, 테이블 등을 갖춘 소통·교류 공간으로 구성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구에 체온측정기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안심콜 전화를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군에 등록외국인(8월 기준)은 417명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총 23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결혼이주여성과



이승욱(오른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강진외국인쉼터를 찾아 한국어 교육을 받고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 제공>

함께 제조업, 농업, 어업, 건설업, 학과 보조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최근 강진외국인쉼터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쉼터가 외국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교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사랑상품권 디자인 변경

함평군이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을 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함평군은 함평사랑상품권 1만원권 도안(사진)에는 함평 신광면에 복원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5만원권에는 올 초 공식 개장한 함평자동차극장 전경을 넣고, 추가로 관광지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군은 새로운 상품권 도안으로 함평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과,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함평자동차극장을 배경으로 넣어 함평의 특색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1만원권의 경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가 언제 헐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등기 명



의인이었던 김철 선생 생가터인 신광면에 복원된 청사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안뿐만 아니라 상품권 색상 또한 변경됐다. 기존 상품권의 경우 1만원5만원권 지폐 색상과 반대로 제작돼 있어, 이번 도안 변경 시 상품권 1만원권은 녹색으로 5만원권은 황색으로 변경해 지폐와 동일한 색으로 통일했다.

특히 신규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섞여 있어 서로 다른 권종별 색상이 동일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는 상품권 사용 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현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크문화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

